

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함서다 인도불교동기추진위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인도불교)

“건물관리는 양호 단청은 조잡 완벽한 복원 되도록 최선”

북사찰 단청실태 보고온 김성룡씨



지난 70년 초반 해각스 님으로부터 단청 기술을 전수받고, 이후 30여년간 오직 전통사찰 단청 보존이라는 한 우물만을 파온 장인 김성룡(51·사진)씨.

지난해 11월 조국평화 통일불교협회 방북단의 일원으로 북 사찰의 단청 복원을 위한 사전조사차

북한을 방문한 김 씨는 조잡한 단청과는 달리, 복원과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어 놀랐다고 회고했다.

김 씨는 3월부터 이뤄질 북한 사찰에 대한 단청지원과 기술전수를 맡았다. 평양 법운암과 사리원 성불사가 대상 사찰이다. 북한 단청지원을 앞두고 김 씨는 한껏 부풀어 있다. 자신의 손에 의해 북 사찰이 전통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김 씨는 “이번 북한 방문 당시 안국사 등 9개 사찰을 조사한 결과 상원암 칠성각과 월정사의 단청이 비교적 원형을 잘 보존해 있는 상태”라며 “북한에서 수집한 자료와 한국의 단청자료 등을 비교분석하며 보다 완벽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단청 지원을 요구한 것도 남한불교와의 교류 차원도 있지만 사찰 복원을 통해 불교의 전통을 되살리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 북한불교와 사찰이 남쪽에 자세히 알려지고, 남북한 불교도가 함께 북한 곳곳의 사찰에서 법회를 여는 날도 기대해 봅니다.”

영천=박원구 기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오는 3월부터 북한지역 사찰에 대한 단청보수를 지원하기로 조선불교도연맹과 합의함에 따라 북한 불교와 사찰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사찰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능을 하며, 이곳 스님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남한 불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북한 국보유적 34호인 안국사의 공포는 남한사찰과 달리 양면으로 날개가 붙어있다.

南風타고 변화 물결 넘실

오늘의 북한불교



◇한국전쟁 당시 전소되었으나 전후에 다시 복구된 금강산 표훈사전경. 표훈사는 금강산 4대 사찰중 하나로 금강산의 관광명소다.

사찰현황

전국 60여곳...해방직후의 10% 100여년 단청안돼 훼손 심각

공법사, 용화사, 법운암, 정릉사 등 평양의 4곳을 비롯해 전국에 약 60곳이 있다. 평안도지역에 묘향산 보현사(국보 유적 22호), 심원사(국보 21호), 안국사 등 20여 사찰이 있고, 황해도에 성불사(국보 31호), 패엽사(보물 27호), 심원사(국보유적 33호) 등 15곳이 넘는 사찰이 남아 있다. 함경도 지역에도 양천사, 용흥사, 가루사, 쌍계사 등 10여개 사찰이 있다. 이밖에 강원도와 양강도, 경기도에 흩어져 있다.

현존 사찰수는 해방 직후 540여 곳의 10%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폭격이나 방화로 훼손돼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능면에 있어서도 북한의 사찰은 종교적인 기도, 수행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명승지로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단청 상태는 새로 복구된 공법사, 정릉사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찰이 100여년간 단청이 되지 않아 훼손이 심각한 상태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방북단 일원으로 지난해 11~12월 북한을 다녀온 단청장 김성룡 씨는 “사찰 복원과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단청은 너무 조잡해 마치 초등학교이 흉내만 낸 듯한 수준이라 제대로 된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과 신도

스님 300여명...비구니는 없어 의식때 검은색 장삼·붉은 가사

북한에는 현재 300여명의 스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대부분 결혼을 했고, 비구니는 전혀 없으며, 젊은 승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평상시 양복을 입고, 구두 또는 운동화를 신지만 의식을 집전할 때에는 검은색 장삼 위에 붉은 색 대가사를 수한다.

스님들의 역할은 수행과 교화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내외 관광객들에게 사찰을 소개하거나 안내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다만, 스님들의 법제는 선덕, 중덕, 대덕, 선사 등 전통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신도 수는 약 1만명 정도라고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이 밝히고 있다. 1950년 발행된 <조선중앙연감>에 수록된 북조선불교총연맹 가입 신도 37만명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불교의식

조석예불 전통의식 유지 정기법회는 열리지 않아

북한불교의 소의경전은 금강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회의식은 부처님 오신날, 성도절, 열반절 등 불교의 3대 명절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최근 몇년동안 조국통일 기원법회, 남·북 합동법회 등이 비정기적으로 열렸다. 남한 사찰에서 흔히 열리는 초하루법회, 관음재일법회, 지장재일법회 등은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의식 집전은 석문의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조석예불과 사시불공 등 전통적인 의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질이 좋은 곡식을 불전에 올리는 사하촌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다.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은 “89년 처음 북한에 갔을 때 북한사에서 집바브웨 부통령 일행을 만나, 부친 소임을 맡은 스님과 함께 축원을 해주었다”면서 “남쪽의 의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화물결

호칭 ‘중선생’에서 ‘스님’으로 단청지원 요청 등 변화 뚜렷

북한불교는 남·북 불교교류가 시작된 89년 이후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스님이라는 호칭이 되살아났고, 삭발하는 스님이 생겨났다. 묘향산 보현사 10명의 스님 중 절반이 삭발한 스님이고 ‘중선생’이라는 호칭도 스님으로 바뀌었다. 북한을 방문하는 남쪽 스님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80년대와는 크게 다른 분위기다. 법회의식도 삼귀의, 사홍서원 등 남에서 만든 한글노래를 쓰고 있다.

92년 간행된 <조선말대사전>을 보면, ‘반동’이라는 표현이 떠났던 종교 관련 단어가 완전히 삭제됐다. 일례로 ‘부처’라는 단어가 81년 간행된 <현대조선말사전>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우상’으로 풀이가 돼 있었으나, <조선말대사전>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북측의 요청에 의해 최근 단청지원으로 이어진 점은 북한불교의 커다란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번 단청지원을 계기로 남·북 불교교류의 전망은 한 층 밝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89년 이후 15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온 바 있는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은 “식량지원만을 요구해 왔던 조선불교도연맹이 단청지원을 요청한 것은 한 걸음 더 북한불교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nia.com <사진제공=조국평화통일 불교협회>



◇남한의 단청기술자들이 복원할 사리원 성불사극락전.



◇묘향산 보현사 스님들과 평불협회장 법타스님(오른쪽 끝). 북한스님들은 삭발을 하고, 검은색 장삼, 붉은가사를 수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증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환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